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루돌프 슈타이너의 12감각론을 활용한
아동 미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고 다 희

2023년 8월

루돌프 슈타이너의 12감각론을 활용한 아동 미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

지도교수 강 민 석

고 다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고다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이 수 목 (서명)

위 원 강 민 석 (서명)

위 원 이 승 수 (서명)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년 6월

A Study on an Art Educational Program for Children
Utilizing Rudolf Steiner's Theory on the Twelve Senses

Da-hee Ko

(Supervised by professor Min-seok K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23.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Min-seok Kang, Prof. of Art Education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루돌프 슈타이너의 12감각론을 활용한 아동 미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

고 다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강 민 석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미디어를 접하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디지털 미디어에 많이 의존하며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정보들을 얻어낸다.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는 우리에게 강렬한 자극들을 주며 미디어로부터 오는 각종 자극들은 인간이 가지는 타고난 감각 기관을 쇠퇴시킨다. 또한, 감각을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들을 얻는 아이들은 디지털 영상 및 소리 등 인위적인 것들에 길들여져 있어 감각은 점점 아이들과 멀어져간다.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의 감각을 온몸으로 느끼고 깨워줘야 하지만 그러한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동 미술 교육 현장에서는 잘 그리기 위한 교육인 결과물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빅터 로웬펠드의 아동 미술 표현 발달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전도식기(4-7세) 아동들 중 서서히 주관적인 도식 표현이 시작되며 자기 표현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6-7세를 대상으로 아동 미술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아동들의 성장에 있어 감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위한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인간의 감각을 오감의 범위를 넘어서 의지(몸), 감정(혼), 사고(영)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12가지로 세분화된 감각을 설명하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12감각론을 활용한 아동 미술 교육 프로그램 지도 방

안을 제시한다. 이는 감각의 발달과 함께 아동의 마음 속 감정 감각이 열리고 아동의 긍정적인 정서를 길러주며 사고의 확장과 창의력 발달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제 I 장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설명하고, 제 II 장에서는 아동 미술 교육에 대한 개념과 발달단계 그리고 감각을 활용한 아동 미술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루돌프 슈타이너의 12감각론을 바탕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12가지 감각을 분석하였다. 제 III 장에서는 12감각을 활용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학습 지도 단계는 수업 계획 및 자료준비, 학습 환경 조성 및 동기유발, 수업 유의점 및 학습 탐색, 감각 활동 및 표현, 감상 및 평가로 이루어진다. 실제 전도식기(4-7세) 아동 중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감각을 활용한 미술 수업을 통해 자신의 감각을 인지하고 오로지 감각에 집중하여 자신에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 미술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작성하여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활용 방법과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적인 교사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아동에게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감각을 일깨워줄 수 있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아동 미술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그림 결과물만 중시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이제는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미술 수업 지도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본 논문은 2023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II. 이론적 배경	3
1. 아동 미술 교육의 이해	3
2. 루돌프 슈타이너의 12감각론	12
III. 12감각을 활용한 미술 교육 지도방안	21
1. 수업 설계	21
2. 수업 계획	24
3. 교수-학습 지도안	28
IV. 결론	55
참고문헌	58
<Abstract>	60

표 목 차

<표 1> 로웬펠드의 미술 표현 발달 단계	9
<표 2> 슈타이너의 12감각의 세가지 영역	14
<표 3> 슈타이너의 12감각론	15
<표 4> 단계별 학습 지도 단계	22
<표 5> 차시 별 12감각 미술 프로그램 수업 계획안.....	24
<표 6> 학습 단계별 수업 진행 과정	25
<표 7> 교수-학습 지도안 모형	26
<표 8> 1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29
<표 9> 1차시 <몸으로 느끼고 표현해 보아요> 수업 결과물.....	32
<표 10> 2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36
<표 11> 2차시 <손이 시려워!> 수업 결과물	39
<표 12> 3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42
<표 13> 3차시 <맛과 냄새를 그려요> 수업 결과물	45
<표 14> 4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48
<표 15> 4차시 <그림문자를 만들어 보아요> 수업 결과물.....	5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는 MZ세대의 학부모가 증가하면서 아이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른 아이들의 재능 계발을 위해 어릴 적부터의 아이 교육을 중시하는 학부모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기서 MZ세대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이 둘의 세대를 줄임말로 ‘MZ세대’라고 한다. 이러한 MZ세대 학부모들의 밑에서 자라온 아이들은 디지털 문화에 친숙하며 능숙하다. 이는 오늘날의 유아들의 놀이도 변화를 맞이 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요즘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 흙이나 모래를 만지는 등 자연과 함께하며 뛰어놀기보다는 텔레비전과 인터넷,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영상이나 소리에 많이 길들여져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면 자신들의 감각을 이용해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외부 환경과의 관계성을 파악해가면서 세상에 대한 지식들을 얻는다. 그러나 요즘 사회의 특성에 맞게 디지털 미디어에 길들여져 있는 오늘날의 아동들은 일찍부터 인위적인 것들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에서 오는 감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높은 학구열을 가진 MZ세대 학부모들의 미술 교육 수요에 따라 미술 교육 현장의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대두되지만, 아직도 미술 교육 현장에서는 잘 그리기 위한 교육으로 과정이 아닌 결과물에 치중되어 있는 교육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아동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통해 미세한 감각의 자극을 인식하는 과정과 함께 더불어 전인적 인간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을 대상으로 감각을 활용한 미술 활동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아동 미술 교육 안에서 ‘감각’을 활용한 미술 활동들이 아동의 긍정적인 정서를 길러주고 사고를 확장해주며 창의성을 확대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며 어떠한 교육적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도식기 아동(4-7세) 중 6-7세를 대상으로 아동들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각이 오늘날 미술 수업에서의 필요성과 감각 활용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미술 수업에서의 감각 활용의 중요성을 실제 수업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 방법은 아동들이 감각을 활용한 미술 교육으로 다양한 경험과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아동 미술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미술 교육 프로그램 지도 방안을 제시하여 6-7세 아동 25명을 대상으로 감각을 접목한 실제 수업을 진행하고, 미술 활동을 통해 활동 그 자체로 즐거움을 느끼고 긍정적인 정서를 길러주며 아동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지도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슈타이너의 12감각론을 활용한 아동 미술 교육 프로그램 지도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미술 교육을 이해하고 미술 활동과 감각을 통한 미술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 가치를 선행 문헌을 통해 분석하였다.

둘째, 문헌 고찰을 통하여 슈타이너의 12감각론과 12감각론의 교육적 의의를 분석하였다.

셋째, 이에 따라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감각을 활용한 아동 미술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12감각론을 활용한 방안을 모색하여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도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계획한 감각을 활용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 지도안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 진행 후 수업의 효과와 교육적 가치를 알아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동 미술 교육의 이해

1) 아동 미술 교육의 개념 및 의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자기 표현을 한다. 즉, 인간은 몸짓이나 어떠한 대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욕구를 지닌다. 아직 말로 표현하기 서툰 아동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보고 느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형태로 세상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아동들에게 미술은 다양한 경험이나 상상을 시각적 형태로 표현하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따라서 아동 미술은 아동이 자신의 감정과 느낌, 사고 등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시각적·공간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미술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아이들의 자유로운 그림 그리기를 통해 느낀 것을 표현하며,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욕구를 표현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둔다. 즉, 아동들이 그림 그리는 방법이나,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아동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완성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즐기는 과정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아동들이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관찰하는 탐구 활동을 통해 미술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미술을 통한 심미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미술은 아동에게 있어 표현능력 못지 않게 미적 인식 능력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대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지적인 측면의 발전과 사고의 연마를 촉진시키며 나아가 미술 표현 능력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술을 통한 심미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들의 감수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아동 미술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첫 번째, 아동들이 알고 있는 것을 그린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아동의 지능과 연관이 되어 아동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에 따라 표현의 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두 번째, 아동들이 본 것을 그린다는 관점에서는 아동들이 시지각이 발달하면서 더욱 자세하게 관찰하고 세밀하게 그리게 된다.

세 번째, 아동들의 감정에 따라 자신들의 개성과 정서를 표출한다는 관점에서는 아동들이 느낀 것을 그리기 때문에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들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쌓아간 도식의 표현을 그린다는 관점에서는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¹⁾

이처럼 아동 미술은 아동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아동들에 있어 미술 활동은 전반적인 발달과 연결되어 있다. 아동들이 그림을 그릴 때 단순히 표현 활동만을 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소근육 활용, 집중력, 그리고 손과 눈의 협응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3차원의 세계를 평면으로 표현해야 하는 인지적 능력이 모두 포함된다. 즉, 아동 미술은 아동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울 뿐만 아니라 각종의 발달 영역을 도울 수 있는 매체로서 성장 발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불어 건강한 자아 개념을 확립하기 위한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교육적 활동이 된다.

2) 아동 미술의 특징 및 발달단계

인간에 있어 미술의 출발점은 아동기 때의 낙서이다. 그리기 도구를 손에 들고 바닥이나 벽에 그리는 행위는 바로 미술 활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의 미술 활동은 본능적 욕구로부터 시작되며 아동은 미술을 통해 감정적 표현을 하고 미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아가 형성된다. 이러한 아동 미술은 일반적인 미술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1) 아동 미술의 특징

아동 미술의 주체는 아동이며, 아동들은 잘 그리기 위함이 아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 충실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아동의 그림에서는 개개인의 주관적인 성격들이 나타나며, 성장하면 할수록 자신이 알고 있는 지적 특성이 더해가

1) 남정덕 외(2019), 「남들은 모르는 미술 전공 이론」, 미진사, p.92.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화를 볼 때에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아동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아동 미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아동 미술의 표현 특성은 순차적으로 발달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조작(난화)단계에서 시작해 상징단계, 사실의 단계로 발달하며, 아동미술에서의 표현 특성은 연령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능이나 시지각이 발달하면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기법이나 재료부터 시작하여 배경을 그리는 능력, 색채를 선택하는 능력, 비례를 그려내는 능력 등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연스럽게 표현 능력이 발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이 그리는 대상은 대부분 자신과 가까운 것에서 찾는다. 아동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자신에게 강한 정서적 경험을 주었던 대상을 크게 과장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강조한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것은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 아동 미술의 특성이다.

셋째, 아동이 즐겨 다루는 미술의 주제(대상)는 인물이다. 아동은 자신에게 친숙하고 중요한 것을 그리기 때문에 아동이 가장 좋아하는 소재는 인물과 동물이다. 이러한 관심은 점차 시지각이 발달함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2) 아동 미술 표현 발달 단계

아동 미술의 표현 발달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아동들은 일정한 발달 과정을 거친다. 또한 어떠한 대상에 대한 도식이나 상징을 개발하여 모든 표현 활동에 있어 계속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대부분의 대상이나 주제는 자신이 가장 의미를 두는 것에 중요성을 둔다. 아동의 미술 표현 능력 발달 단계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연구가 되어 왔다. 대표적인 학자인 빅터 로웬펠드(Victor Lowenfeld, 1903-1960)²⁾는 아동들의 미술 표현 발달 단계를 자연 발생적인 상징체계의 발달로 보며 전체적인 양식과 발달의 진행은 매우 유사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각 발달 이론의 지지자였던 준 킹 맥피(June King Mcfee, 1917-2008)³⁾는 아동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인종 뿐 아니라 살아온 문화적인 환

2) 빅터 로웬펠드: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 미술 교육 학자이며, 철학, 심리학, 교육학, 그리고 미술과 유럽의 어린이 연구 운동과의 관계를 폭넓게 연구하였다.

경에 따라서 표현 능력 발달이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았다. 미술의 이해와 감상을 강조했던 엘리엇 웨인 아이스너(Elliot Wayne Eisner, 1933-2014)⁴⁾는 아동들의 미술 표현 발달은 지각 능력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학습과 경험에 의해 표현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하늘은 파랗다’라는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아동들은 성장하면서 세상의 상징적인 기호를 알아가며 표현함을 주장한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일반적인 공통점을 지니기도 하지만 그 중 로웬펠드는 많은 미술 교사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남기며, 로웬펠드의 미술 표현의 발달 단계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들과의 작업과 수년간의 경험에서 비롯된 통찰력 있는 결론임에 따라서 아동의 미술 표현 발달의 일반적인 특징을 끌어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로웬펠드의 이론을 중심으로 아동 미술 표현 발달 단계를 분석하였다.

로웬펠드는 창의성 중심 미술 교육학자로서 창의성은 아동들에 있으며 일정한 발달 단계를 지나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학자이다. 따라서 로웬펠드는 아동들의 순차적인 발달을 중요시 여기며 발달 단계는 차례대로 진행되는 순차성이 있기 때문에 발달 단계를 건너 뛸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각 단계에서는 단계에 적합한 동기부여와 주제, 재료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⁵⁾ 로웬펠드는 유아들의 미술표현에 있어 발달 단계를 난화기(2-4세), 전도식기(4-7세), 도식기(7-9세), 또래 집단기(9-11세), 의사실기(11-13세), 결정기(13-16세)로 제시하였다.

① 난화기(The scribbling stage): 2-4세

첫번째 단계인 난화기(2-4세)는 처음 유아들이 자아가 표현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유아들의 근육이 덜 발달되어 있어 동작을 조절하지 못해 마구 움직이는 단계이며 유아들의 움직임에 의해 그림을 그리면서 생기는 선들을 관찰하고 발견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시기에는 부모와 교사의 격려 외에 더 좋은 자극은 없으며 간접은 아이의 운동 감각 기능의 성장을 억제시킨다.⁶⁾ 난화기에는 더 세부적인 단계로 무질서한 난화기, 조절되는 난화기, 명명

3) 준 킹 맥피: 예술을 통해 문화적 이해를 발전시켰으며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및 어린이의 요구를 기반으로 ‘지각 묘사 이론’을 연구하였다.

4) 엘리엇 웨인 아이스너: 스탠포드 교육대학원의 예술 및 교육학 교수였으며 교실에서의 창의적 사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주장하고 교육에서 표현 형식의 중요성을 발전시켰다.

5) 남정덕 외(2019), 전계서, p.95.

하는 난화기로 세분화된다. 무질서한 난화기에는 감각이 주변 환경과 접촉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마구 움직이는 단계, 일종의 끄적거림에 가까운 단계이다. 조절되는 난화기에는 어느정도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이나 원들의 연속적인 표현을 하는 단계이며, 명명하는 난화기에는 아동들이 자신이 아는 것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며 이름을 붙이는 단계이다.

② 전도식기(The Preschematic Stage): 4-7세

두번째 단계인 전도식기(4-7세)에서는 유아들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던 것에서 의식적인 형태로 바뀌며 의도적인 표현이 시작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큰 특징은 도식적인 표현이 나타나며, 자기중심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자신과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관계성을 이해하는 특징을 가진다. 전도식기 단계의 유아들은 손과 눈의 협응 능력이 계발되면서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관찰하고 도식적으로 그림을 표현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자기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대상의 크기와 색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기에 어떠한 질서 없이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따라서 크기가 변화도록 표현한다.

③ 도식기(The schematic stage): 7-9세

세번째 단계인 도식기(7-9세)에서는 인지적으로 다양한 개념이 형성되며 형성된 개념을 가지고 도식화된 그림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전도식기와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표현을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였던 전도식기의 그림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되기 시작한다.⁷⁾ 또한 이 시기에는 자신이 형성된 개념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하늘은 파란색, 해는 빨간색 같은 형식적인 표현을 보이는 특징을 보인다.⁸⁾ 또 다른 도식기 단계의 특징은 공간 표현에 있어서 바닥이나 땅을 나타내는 기저선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다.

6) 김나은(2021), “놀이를 통한 전도식기 아동 미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p.8.

7) 김혜진(2016), “로웬펠드 유아 미술교육론의 교육적 의의”,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p.25.

8) 남정덕 외(2019), 「남들은 모르는 미술 전공 이론」, 미진사, p.94.

④ 또래집단기(The gang age): 9-11세

네번째 단계인 또래집단기(9-11세)에서는 학교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집단에 관심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주변 관계에도 관심을 가진다. 이 시기 아이들은 초기에는 도식적인 표현과 함께 자신이 바라봤던 대상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함께 나타난다. 이후 점차적으로 도식적인 표현이 없어지며 자신이 관찰했던 결과를 그림에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사실적 표현에 미숙한 아동들은 미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다.⁹⁾ 색채에는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색을 사용하는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 표현이 주를 이룬다.

⑤ 의사실기(pseudo-naturalistic): 11-13세

다섯번째 단계인 의사실기(11-13세) 단계에서는 지적인 발달이 주를 이루게 된다. 그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 표현을 하고자 하는 표현 욕구는 높지만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아동들이 나타나면서 흔히 말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와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의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시각형과 촉각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시각형 아동은 대상의 전체를 부분의 종합으로 표현하고, 촉각형 아동은 형태를 신체적, 정서적, 지적 이해의 종합으로 표현한다.¹⁰⁾ 의사실기 단계의 아동들은 원근법을 이해하고 입체 표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며 의도된 공간 환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⑥ 결정기(The period dscision): 13-16세

여섯번째 단계인 결정기(13-16세) 단계에서는 표현의 욕구가 더욱 더 강해지면서 자기의 개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시각형, 촉각형, 중간형으로 구분되며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여기서 시각형은 외형과 명암, 원근, 비례, 배경등을 중시하며 촉각형은 내적 정서의 표현과 색채, 공간 표현이 주관적인 특징을 보인다.¹¹⁾

9) 김나은(2021), 전계서, p.9.

10) 남정덕 외(2019), 전계서, p.94.

11) 오현숙 외(2019), 「아동미술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p.30.

다음 <표 1>은 로웬펠드가 연구한 발달단계의 특성들을 요약한 표이다.

<표 1> 로웬펠드의 미술 표현 발달 단계

구분	특징	
난화기 2-4세	마구 움직이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자아가 표현되는 시기로 유아들의 움직임을 통해 그림을 그리면서 생기는 선들을 관찰하고 발견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 ▪ 무질서한 난화기, 조절되는 난화기, 명명하는 난화기
전도식기 4-7세	의도적인 표현이 시작되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식적인 표현이 나타나며, 자기 중심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자신과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관계성을 이해한다. ▪ 주관에 의한 도식표현이 나타난다.
도식기 7-9세	도식화된 그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된다. ▪ 개념화된 형태를 반복적으로 표현한다.
또래집단기 9-11세	도식적이고 사실적 표현이 나타나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점차 도식적인 표현과 함께 자신이 바라본 객관적인 사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의사실기 11-13세	사실적으로 표현하려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인 발달이 주를 이루며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높지만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시기이다. ▪ 촉각형과 시각형으로 표현 유형이 분화되는 시기이다.
결정기 13-16세	자기의 개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적 표현기로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대상을 탐구하고 그것을 변화시켜 표현한다. ▪ 시각형, 촉각형, 중간형으로 표현 유형이 분화되는 시기이다.

위와 같이 아동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변을 관찰하는 능력이 발달함과 동시에 분명하고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성장할수록 아동들이 자신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최대한 비슷하도록 그리고자 하는 표현 욕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대로 그리는 시기가 아닌 난화기, 전도식기, 도식기에 잘 그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아동의 그림의 결과에만 중시한다면 로웬펠드가 주장하는 각 발달 단계의 순차적 발달을 무시하는 것이고 아동들이 무한한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로웬펠드가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기초로 아동의 표현 발달 단계를 구분한 것처럼 각 발달단계에 맞는 특성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이해와, 아동들의 개인 차이를 인식하고 나이에 맞는 발달 단계에 따른 적절한 지도와 연구의 과정을 거친다면 효과적으로 아동의 표현을 발달시킬 수 있다.

3) 감각을 활용한 아동 미술 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적 가치

우리 몸에 있어 감각은 어디에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감각과 함께 살아간다. 감각의 사전적 정의는 빛이나 소리와 같은 자극들이 몸속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의식 현상이다.¹²⁾ 아동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온몸이 감각체가 되어 감각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과 자신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인식한다. 즉,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물을 보고 호기심을 느끼며, 그 사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며,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느끼고, 손으로 만져보는 기본 오감을 통해 탐색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행동들이 감각과 이루어지는 아동들에게 자연스럽게 감각을 통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은 아동들의 교육의 기초가 될 수 있다.¹³⁾

아동 미술에서 감각 교육은 많은 학자들로부터 중요성을 언급해왔다. 근대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Johann Amos Comenius, 1592-1670)¹⁴⁾는 유아기 때에는 감각 기관을 통해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유아기에 감각적 자극을 주고, 감각적인 사물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진다는 것

12) 네이버 지식백과, 「감각」, <https://terms.naver.com/>, 2022년 12월 4일.

13) 이경연(2016), “3세 유아를 위한 감각놀이 기반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p.38.

14)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 보헤미아의 교육학자이며 목사이다. 실학주의를 대성시킨 17세기 최대의 교육자이며 사상가로서 교육에 있어 직관을 교육의 제1원칙으로 하였다.

이다. 이어 코메니우스는 실물을 통한 감각을 강조하는데 실물이나 그림과 같은 모형을 교육 매체로 삼고 이러한 매체들을 감각 기관을 사용하여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였다.¹⁵⁾

본격적으로 감각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던 마리아 몬테소리 (Maria Montessori, 1870-1952)¹⁶⁾ 또한 인간의 지식은 경험에 의해 축적되고 이러한 경험은 감각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 이에 감각교육은 감각 기능을 예민하게 훈련시켜 주변 세계의 사물에 대한 속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의의를 둔다. 또한 발달 시기에 맞는 지적 활동의 발달을 강조하며 지적발달은 감각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감각을 발달시키는 것은 지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이라 강조한다.¹⁷⁾

이처럼 세상을 감각을 통해 바라보는 아동들의 전인 발달을 위해서는 감각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술 활동에서 시각을 중심으로 하는 표현 활동 보다는 모든 감각을 동원한 탐색활동이 필요하다. 이는 “감각을 통해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재료의 미적 요소를 발견하며, 미술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증진시킨다”¹⁸⁾ 이러한 경험들이 이후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이 느낀 것을 표현하고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며, 감각적 경험은 아동의 지적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

우리는 아동들이 가진 감각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감각을 통한 미술 교육이 행해질 때 다음과 같은 교육적 가치를 갖는다.

첫째, 감각은 인지 발달의 기초가 된다. 유아기 때의 모든 인식은 감각에 의해 시작되기 때문에 감각을 통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게 된다.

둘째, 감각 기관의 발달은 심리적 안정을 준다. 감각을 통한 미술 교육으로 감각 기관이 자연스럽게 발달되며 그 감각은 알맞은 기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아동들은 적절한 상황에서 감각을 활용하여 활동을 하게 되고 이는 심리적 안정까

15) 이선영(2011), “감각경험의 교육적 의미: 루소와 코메니우스의 관점 비교”,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p.22.

16) 마리아 몬테소리: 이탈리아의 여의사이며 심리학자, 아동교육자이며 놀잇감을 통해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개발해냈다. 감각의 자극을 통한 교육과 치료에 확신을 가진다.

17) 김선애(2000), “몬테소리 감각교육이 유아의 지각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p.12.

18) 이경연(2016), 전게서, p.7.

지 이어진다.

이와 같이 감각 교육은 아동들에게 감각의 자극을 불러일으켜 두뇌발달로 이어지며, 이는 학생들의 집중력을 향상시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루돌프 슈타이너의 12감각론

1)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예술론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¹⁹⁾의 교육예술론은 교육을 예술로 바라보는 것이다. 즉, ‘교육은 곧 예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교육에 있어 예술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고, 예술이 모든 교육의 근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내면에 있는 창조적 감성을 중요시하고, 아동들이 풍부한 감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모든 교육적 활동에 예술적 접근을 하는 예술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교육예술론이다. 슈타이너는 교육예술론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삶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한다는 교육철학을 가진다. 이러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인간을 조화롭게 육성하기 위한 전인교육을 주장한다. 예술은 전인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며, 그 예술은 인간을 신체, 영혼, 정신의 통합적인 존재로 이뤄가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²⁰⁾ 이렇듯 슈타이너에게 교육이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다. 또한 공교육을 받기 전의 아동들에게는 교육을 지식의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영혼과 정신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러한 인식을 확장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은 학문이 아닌 예술이어야 하며 교육이라는 행위는 아동의 신체와 영혼, 정신세계와의 조화로운 교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²¹⁾

19) 루돌프 슈타이너: 독일의 사상가, 20세기 초반 정신세계를 학문적으로 설명하며 최초로 인지학을 창시하였고 1919년 발도르프 교육 사상을 제창하였다.

20) 김재희(2014),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슈타이너 교육예술론을 기반으로 한 색채 디자인 교육 수업방안 연구-전도식기 아동 6세부터 7세 중심으로」, 제47권,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p.63.

21) 류재숙(2003), “슈타이너의 교육예술론에 근거한 미술교육 연구: 포르멘과 수채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15.

슈타이너의 교육예술론은 3가지의 원리를 갖는다.

첫 번째는 정신성의 원리이다. 이는 슈타이너가 주장하는 인간이란 육체, 영혼, 정신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교육을 통해 아동들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담아내기 위해서는 예술이라는 행위가 필요하다. 예술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본질적인 정신세계를 인지해주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예술적 접근을 통해 아동들의 영혼과 정신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신성의 원리이다.²²⁾

두 번째는 전인적 인간 형성의 원리이다. 이는 육체를 통해 영혼과 정신의 본질을 이해했을 때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아동들에게는 지적인 사고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즉, 몸과 마음을 움직여야 전인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교육에 대한 예술적 접근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전인적 인간 형성의 원리이다.

세 번째 원리는 창조적 감성의 원리이다. 슈타이너는 아동들의 내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며 교육이라는 행위를 통해 아동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재능과 능력을 깨우고자 하였다. 이러한 아동의 내면에 있는 능력들을 꺼내고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예술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술이라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창조성과 내적 감성을 기초로 그 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²³⁾ 따라서 모든 교육은 예술적 창조성과 감성을 기초로 해야한다는 것이 창조적 감성의 원리이다.

슈타이너의 교육예술론처럼 교육 활동에 예술적 접근을 하는 것은 아동의 내면 세계와의 교감과 연결되어있다. 그렇기에 교사는 아동들의 한발자국 뒤에서 바라보며 아이들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파악하고 면밀히 관찰해야한다는 것이다. 교사는 예술가적 감각을 가지고 특성이 다른 아이들에게 어떠한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인지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이 세계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속에서 아이들도 교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고 아동들은 자연

22) 박연순(2008), “슈타이너 교육사상에 기초한 유아 미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p.20.

23) 상계서, p.22.

스럽게 창조적이며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듯 슈타이너는 모든 교육의 기초를 예술과 연관시켜 강조하고, 예술이 자아를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아동의 육체표현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2) 슈타이너의 12감각론의 개념

인간은 누구나 감각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감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만지는 것에서부터 밥을 먹을때나, 음악을 들을때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나 감각이 동원된다. 그리고 감각기관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처음으로 외부 세계를 경험하는 도구가 된다. 슈타이너는 인간에게 12가지의 감각이 있다고 주장하며 감각론에서의 각각의 감각기관들을 개별적인 요소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감각기관 전체를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슈타이너의 12감각은 크게 의지(몸)감각, 감정(혼)감각, 사고(영)감각으로 분류된다. 이를 간단한 표로 형상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슈타이너의 12감각의 세가지 영역

의지(몸)영역	촉각	생명감각	운동감각	균형감각
감정(혼)영역	후각	미각	시각	열감각
사고(영)영역	청각	언어감각	사고감각	자아감각

위 <표 2>는 슈타이너가 인간이 세계와 만났을 때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른 분류로 이해할 수 있다. 의지(몸)의 영역은 몸과 관련된 감각으로 규정되며 인간의 내부에 속한 감각으로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각이다. 촉각과 생명감각, 운동감각, 균형감각이 이에 해당한다. 감정(혼)영역은 의지를 가진 인간이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감정과 밀접한 영역으로 후각, 미각, 시각, 열감각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사고(영)영역은 인간의 감정을 넘어서 외부세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영역으로서 청각, 언어감각, 사고감각, 자아감각이 이에 해당한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12가지로 세분화된 감각을 간단한 표로 형상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슈타이너의 12감각론

의지(몸) 영역	촉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몸의 피부 표면 전체에 자리잡고 있는 감각이며, 무엇인가를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이다. • 촉각을 통해 인간은 경계와 경계가 맞닿음을 깨닫게 되는 특성을 지닌다.
	생명감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감각은 온몸에 자리잡고 있는 감각이며 우리에게 위협이 생겼을 때 신호를 보내는 감각이다. • 통증과 연관되며 두려움이나 공포, 고통에 관해서 가정환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간 개개인에 따라 발달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감각이다.
	운동감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감각이며,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감각이다. • 운동감각은 내가 움직이겠다는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움직임으로 실현하는 것이 운동감각의 기능이다.
	균형감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발로 세상에 서고 안정되게 움직이는 감각이다. • 균형감각의 올바른 발달을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발을 딛고 서는 순간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독립성을 강하게 느끼고, 승리감을 맛볼 수 있도록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
감정(혼) 영역	후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냄새를 맡는 감각이며, 후각은 외부의 자극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자극을 가장 빨리 인식하는 감각기관이다. • 후각을 통해 냄새를 맡고 그 냄새에 대한 판단을 하게되는 판단력은 한 개체가 도덕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각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열고 닫을 수 있기에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미각을 통해 외부로부터 오는 낯선 물질을 몸에 받아들이고 침과 함께 동화되는 과정은 우리 사회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은 피부의 바깥부분에 있으며 우리 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감각기관이자 총체적인 감각기관이다. • 시각의 자극을 위해서는 다양한 색채 경험이 필요하며 과도한 시각적 자극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열감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감각은 다른 감각기관들이 작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감각기관의 근원이 된다. • 열감각은 따뜻함과 차가움을 인지하고 그것에 반응하며 열감각을 통해 열이 전도된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사고(영역)	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은 소리를 듣는 감각이며, 우리는 청각으로 지각되는 소리를 통해 물체의 고유한 성질과 본성을 인식할 수 있다. • 청각은 섬세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소리가 나는 방향을 인지하고 몸의 중심을 유지하는 균형감각과 이어진다.
	언어감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감각은 언어를 듣는 감각이며,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감각은 인간 상호간의 의사소통에 관계한다. •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듣는 다양한 소리들 중에 일반적인 소리와 언어를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감각이다.
	사고감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생각을 듣거나 보는 감각이며, 타인의 생각을 이해한다는 뜻을 가진다. • 말로 표현한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 사고 감각의 발달을 위해서는 촉각부터 시작한 모든 감각들이 깨어있어야 한다.
	자아감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나와 관계하는 타인, 나와 대화를 나누는 타인도 자아를 소유한 존재이고 독립된 개체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자아감각을 통해 우리는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출처: 알베르트 수스만(2007), 「12감각-루돌프슈타이너의 인지학 입문」, 서유경 역(2016), 푸른씨앗, pp.28-306.

위 <표 3>와 같이 슈타이너의 12감각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감의 범위를 12가지로 세분화하여 설명한다. 슈타이너의 감각론에 따르면 아동들은 신체 전체가 하나의 감각기관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아동들에게 감각이란 인간이 앞으로 나아갈 세상을 향한 문으로 해석되며 인간의 감각기관을 12가지로 구분하여 감각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인간의 12감각을 모두 적절하게 깨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신체 전체가 하나의 감각기관인 아동들에게는 감각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깨닫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다. 아동들은 이러한 감각기관의 경험을 통해서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고 환경 자극에 반응한다. 이에 우리는 아동들이 신체적 감각을 통한 직접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각을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나 놀잇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12감각 중에서 촉각이 모든 것을 인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감각이라면 촉각을 기본으로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작용한다는 것도 우리는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감각기관은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하나의 구성체를 이룬다. 촉각이 발달되어야 생명감각과 자아감각의 발달까지 이어지고, 균형감각이 바람직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고유운동감각이 잘 발달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감각기관을 개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감각을 전체적인 구성체로서 인식해야 한다. 감각에 대한 이해는 곧 인간에 대한 이해이며 12가지로 구성된 감각기관은 우리에게 통합적인 고찰을 요구하며 우리에게 교육적 의미를 넘어 구체적인 실천 영역을 제시하는데 의미를 둔다. 또한 아동들에게 감각이라는 직접 경험을 통해 얻는 다양한 감각적 자극의 성장을 바탕으로 감각 경험과 지각 능력은 아동들의 인지 발달에 기초가 된다.

3) 12감각론의 교육적 의의

우리는 쉽게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있고, 감각이 보호되어야 할 아동들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화려하고 요란한 TV프로그램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각종 게임이나 프로그램들을 더불어 자연적이지 않은 인위적인 장난감에 쉽게 노출된다. 특히 실제 아동 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각종 교구들조차도 인위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장난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유아기 때에는 감각 기관을 통하여 어떠한 대상의 성질이나 특징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한 감각 경험은 지각

능력과 인지 발달에 기초가 된다. 하지만 21세기의 첨단 멀티미디어 시대에서 각종 자극들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순 없지만 계속적으로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놀이를 하다 보면 인간이 가진 타고난 감각 기관은 점점 쇠퇴해 질 것이라 본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각종 감각들이 발달되어 가고 있는 유아기 시기 만큼에는 아이들의 감각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 있어 인간의 감각이란 계발되어야 할 것이 아닌 보호되어야 할 요소이며 아이들의 기초적인 감각을 적절히 조화롭게 이루었을 때 유아기 때부터 청년기에 이르기 까지 신체 발달 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 언어, 인지적 발달 그리고 영혼 발달에도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이에 슈타이너는 올바르게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인간의 12가지 감각의 발달을 주장하였고, 모든 감각을 골고루 자극하고 발달하였을 때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통합적인 존재로 이루어질것이라 본다. 더불어 12감각의 발달은 올바른 자아를 형성하여 건강한 개인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도 목적을 둔다.²⁴⁾ 우리는 감각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12감각에서도 설명했듯이 우리는 사람들이 주는 모든 인상에 따라 좋고 나쁨을 가르는 것이 아닌 모든 행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른 예로 화를 잘 내는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들에게서는 분노를 지향하고 그에 맞추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반대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들에게서는 선함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도 갖게 되는 성격이라든지, 삶 자체를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늘 감각과 함께 살아가고 인간에게 존재하는 모든 감각기관은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하나의 구성체를 이루고 있는 것에서 감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4) 12감각론의 미술교육

슈타이너에게 예술은 모든 교육의 근원이며 자아를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에 따라 슈타이너는 미술 교육을 중요시하는데 미술교육은 분명하게 그림을 잘 그리는 것에 목적이 아닌 미술적 활동을 행하는 데에 더 큰 의

24) 우진영(2016), “독일 자유발도르프학교의 교육 특성이 우리나라 통합교육에 미치는 시사점”,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p.33.

미를 부여한다. 또한 미술 교육은 인간의 신체의 지각과 개인의 감정 수반 등 인간의 변화하는 정신과 관련지어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슈타이너는 대상의 모습을 보고 재현하는 미술 활동보다는 선과 형, 색에 대한 감각을 형성하고 이를 이용해 표현하도록 하는 교육에 더 큰 의미를 둔다. 슈타이너는 12각론을 주장하며 감각의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해 조형활동과 오이리트미, 습식수채화라는 미술교육방법을 제시한다.

슈타이너의 미술 교육에서의 조형 활동이란 어린이들의 마음 속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과 같으며 조형 활동을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미술 도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적 도구는 자연에 가까운 식물성 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크레용도 천연 왁스가 첨가된 자연과 가까운 재료로 만들어 그림을 그린다. 조형활동의 재료는 밀랍이나 점토, 밀가루 등 천연 소재의 재료를 사용해 아동들의 촉각을 자극하며 감각적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어떠한 상징물을 만들기보다는 재료를 단순히 손으로 느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교육 방법이다. 이러한 조형 활동은 다양한 재료를 통해 손안의 감각을 발달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아동들은 소근육이나 협응 능력이 발달된다. 손으로 하는 작업을 통해 아동들은 직접 자신의 신체를 통해 촉각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동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사의 평가는 배제하며 아동이 스스로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이리트미는 슈타이너가 창안한 동작예술로서 희랍어로 ‘아름다운(eu-)’과 ‘리듬(rythmie)’을 의미하며 ‘아름다운 동작’을 뜻한다. 즉, 인간의 신체를 도구로 삼아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몸이라는 표현 도구를 통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 아닌 소리의 차원을 끌어 올려 가시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오이리트미는 동작으로 나타내는 표현 예술로 운동 감각과 연결된다. 미술의 조형적인 특성과 음악의 리듬적 특성을 함축하며 아동은 음악의 흐름을 몸으로 체득하여 음의 높낮이를 가시적으로 나타낸다. 움직임으로 나타낸 후에는 아동들에게 종이에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는데 음악의 내용이나, 음의 흐름, 가락 등 음악의 요소들을 그림으로 나타낸다. 그 과정에서는 색채 경험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듯 오이리트미는 운동감각에 음악성과 미술 표현이 동반됨으로 아동은 심미적, 표현적인 교육의 효과가 함께 나타난다.

습식 수채화는 건강한 시각 발달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색의 본질을 통해 아동의 내면을 자극하고 아동들이 색깔의 본질에 직접 빠져들도록 유도한다. 습식수채화는 아동에게 신체, 영혼, 정신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 세가지의 조화로운 발달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실적인 외형 묘사보다는 색채의 체험을 중시하며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색의 체험을 통한 형태와의 만남을 제기한다.²⁵⁾ 습식수채화는 화판과 스펀지, 물을 준비하여 젖은 화지에 그림을 그린다. 젖은 화지 위에 다른 색을 이용해 그리게 한 후 색채들이 번지는 모습과 섞이는 과정, 색의 농도 등을 감상하게 하며 시각 발달과 동시에 색의 올바른 체험을 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들은 색의 혼합과 조화를 느끼게 된다.

슈타이너가 주장하는 미술 교육 방법에서 볼 수 있듯이 미술 교육이라는 것은 아동의 자유로운 표현을 유도해야 한다. 즉, 그들의 자유로운 정신성에 기초한 미술을 중시하며 슈타이너에게 미술 교육은 인간에게 예술성이 내재되어 있고 삶의 모든 것은 예술적으로 접근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미술을 매체로 인간이 스스로 정신세계, 즉 깨달음 세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슈타이너는 오직 아동의 신체와 정신의 조화롭고 전체적인 발달을 위해 예술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예술을 통해 아동의 육체나 정신, 영혼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25) 윤송희(2011),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예술론에 기초한 미술지도 방안 연구”, 석사 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p.39.

Ⅲ. 12감각을 활용한 미술 교육 지도방안

1. 수업 설계

미술 교육에서 감각의 중요성은 환기되어야 하며 아동들이 미술 활동을 통해 감각이 고르게 발달하였을 때 조화로운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아야 자기 신체 속 마음의 감정 감각이 열리고 그 감정감각을 통해 다양한 감성의 경험으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폭을 점차 넓혀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감각을 통한 미술 활동을 통해 아동들에게 오로지 자신에게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고 활동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1) 설계 내용

본 연구자는 연구 대상을 전도식기 아동 중 6-7세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슈타이너의 12감각론의 12가지 감각을 활용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으며 아동이 자유롭게 다양한 경험과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 슈타이너의 12가지 감각을 고르게 자극하여 발달시킴으로서 아동들에게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아동의 긍정적인 정서를 길러주고 사고를 확장해주며 창의성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수업 내용은 감각의 상호작용이라는 연계성을 활용하여 한 수업 안에서 여러 가지 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으로 구성하고, 아동들은 감각 기관으로 지각한 내용을 뇌에 저장시키는 과정으로 감각 기관을 이용하여 인식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4> 단계별 학습 지도 단계

① 수업 계획 및 자료준비	② 학습 환경 조성 및 동기유발	③ 수업 유의점 및 학습 탐색	④ 감각 활동 및 표현	⑤ 감상 및 평가
----------------	-------------------	------------------	--------------	-----------

학습 지도의 단계는 <표 4> 같이 수업 계획 및 자료준비, 학습 환경 조성 및 동기유발, 수업 유의점 및 학습 탐색, 감각 활동 및 표현, 감상 및 평가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12감각을 활용한 수업은 과정 중심의 수업으로 아동이 감각을 자극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자신의 느낌을 자유롭게 다양하게 표현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동이 무엇을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는지 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즐겁게 참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교사는 아동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감각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수업 내용에 잘 따라오고 있는지 민감하게 반응하여 유아들의 감각 기관들이 잘 발현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재료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재료를 직접 관찰하고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다.

2) 지도상의 유의점

슈타이너의 12감각론의 감각을 활용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도상의 유의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교사는 지식전달자가 아닌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감각을 활용한 미술 수업의 목표는 미적 표현 능력 향상이 아닌 활동 과정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교사는 아동의 활동이 잘 전개될 수 있도록 조언과 힌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교사는 방임이 아닌 아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학습이 전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학습자가 자유롭게 확장된 사고를 하도록 열린 분위기를 조성한다. 교사는 아동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활동을 탐구하도록 해야 한다. 즉, 확산적 질문을 통하여 아동

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학습 동기가 충분히 유발되도록 한다.

셋째, 활동 전 철저한 수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동들의 감각 기관이 적절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는 수업의 사전 준비와 아동의 발달 정도에 맞춰 감각 활동을 준비하여야 한다. 각각의 감각 기관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적합한 탐구 재료와 주제와 연결할 수 있는 적합한 표현 재료나 용구를 탐구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수업 계획

1) 차시별 수업 계획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슈타이너의 12감각을 활용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총 4차시 과정으로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각 차시는 50분 수업으로 진행한다. 수업 계획안은 아래의 <표 5> 차시 별 12감각 미술 프로그램 수업 계획안과 같다.

<표 5> 차시 별 12감각 미술 프로그램 수업 계획안

차시	감각	활동명	활동 내용
1차시	청각 운동감각 균형감각	몸으로 느끼고 표현해보아요.	음의 세기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노래를 활용한 활동으로 리듬에 따라 움직이고, 그림으로 표현한다.
2차시	촉각 생명감각 열감각	손이 시려워!	차가움을 느끼면서 얼음의 특성을 알아보고 추운 이미지를 표현한다.
3차시	후각 미각 시각	맛과 냄새를 그려요.	맛과 냄새를 습식 수채화 기법으로 표현한다.
4차시	사고감각 언어감각 자아감각	그림문자를 만들어보아요.	명화를 보고 그림 속 인물들이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그림문자로 표현한다.

1차시에는 청각, 운동감각, 균형감각을 활용한 수업으로 다양한 음의 세기가 있는 음악을 듣고 리듬에 따라 직접 움직임을 통해 운동감각과 균형감각을 느끼고, 리듬에 맞춰 선과 점을 이용한 그림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2차시에는 촉각, 생명감각, 열감각을 활용한 수업으로 미끄럽고 차가움을 느낄 수 있는 얼음을 통해 추운 이미지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3차시에는 후각, 미각, 시각을 활용한 수업으로 맛과 냄새를 가지고 좋고 나쁨을 구분하며 직접 맛을 보고 냄새를 맡아보면서 느낀 감정을 습식수채화 기법을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4차시에는 사고감각, 언어감각, 자아감각을 활용한 수업으로 다양한 언어를 알아보고 그림 명화를 본 후 열린 사고를 통해 대화를 유추해보며 그림문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12감각을 활용한 미술 프로그램은 체험, 표현, 감상 수업으로 총 4차시로 구성하였으며 학습 단계 별 수업 진행 과정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학습 단계 별 수업 진행 과정

단계	학습과정	단계 별 진행 내용
도입	준비 및 이해단계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환경 조성 ▪ 동기유발 ▪ 학습 목표 제시
전개	체험 및 표현 단계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소재) 탐색 및 이해 ▪ 감각을 활용한 학습 활동 및 표현 활동
정리	정리 및 감상단계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감상 및 이야기 나누기 ▪ 주변 정리 및 인사

학습 단계는 크게 도입, 전개, 정리 순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도입에서는 수업 준비 및 이해의 단계로 학습자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환경이 조성된 후에는 학습자가 흥미를 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을 위한 활동을 제시하고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전개에서는 체험 및 표현 단계로 교사가 제시한 각 차시 별 수업에 맞는 재료(소재)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감각을 적절한 상황에 활용하여 자극한 후에는 자신이 느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한다. 마지막 정리에서는 작품 감상 및 정리 단계로 학습자들이 활동한 그림을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하여 감상하고 충분한 이야기 시간을 갖는다. 감상이 마무리 된 후에는 주변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를 나눈 뒤 수업을 마친다.

2) 교수-학습 지도안 모형

본 연구자는 1차시부터 4차시까지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각 차시마다 적용이 될 교수-학습 지도안은 다음 <표 7>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7> 교수-학습 지도안 모형

활동명	대상		차시
활동주제			
학습목표			
준비물			
지도 시 유의사항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활동	학생활동	
도입(10)			
전개(30)			
정리(10)			

본 지도안은 도입, 전개, 정리 순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학습 준비, 표현 활동, 작품 감상 순으로 이루어진다. 각 차시는 50분 수업으로 진행되며 슈타이너의 12가지 감각을 고르게 자극하기 위해 감각의 상호 작용이라는 연계성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감각을 한 수업 안에서 이루어지게 구성하였다. 12감각을 활용한 수업은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수업으로 지도안을 구성한다. 또한 6-7세의 발달 수준과 연령에 맞게 활동 내용과 재료를 탐색하여 선정하였다. 그러나 감각 기관들이 적절한 상황에서 인식될 수 있도록 알맞은 재료를 선정하고 아동들이 직접 관찰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수업 환경은 다수의 인원보다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감각을 인식하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교사는 옆에서 아동들이 감각을 제대로 느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표현 활동에 있어서도 아동들이 감각으로 인식한 것을 아동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도화지 안에 표현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3. 교수-학습 지도안

12감각을 활용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은 1차시부터 4차시까지 진행하였다. 이 절에서는 앞서 제시하였던 교수-학습 지도안 모형을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1차시부터 4차시까지의 교수-학습 지도안과 수업 활동 결과 및 수업 지도 내용, 활동 결과 분석을 제시한다.

1) 1차시 - 몸으로 느끼고 표현해 보아요.

1차시에는 슈타이너의 12감각 중 청각, 운동감각, 균형감각을 느낄 수 있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몸으로 느끼고 표현해 보아요>는 음의 세기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요한스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을 소재로 사용하였다. 이 차시에서는 음악을 듣고 움직임으로 표현하며 그림으로 표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다양한 음의 세기가 있는 음악을 집중하고 깊이 빠져들어 들음으로써 청각을 사용하게 된다. 이어 음악을 듣고 음의 세기에 따라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아동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운동감각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교사가 제시해주는 규칙을 지키면서 두발로 서고, 한발로 서면서 중심을 잡는 활동은 균형감각과 이어지며 음악을 듣고 음의 세기에 따라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할 때에 아동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움직이는 것 또한 운동감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음악을 소재로 청각, 운동감각, 균형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1) 교수-학습 지도안

<표 8> 1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명	몸으로 느끼고 표현해 보아요	대상	6,7세	차시	1차시
활동주제	음의 세기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음악을 듣고 리듬을 표현하기 _청각, 운동감각, 균형감각을 중심으로				
학습목표	1. 음악을 듣고 음의 세기를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리듬에 따라 점과 선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3.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다.				
준비물	8절지, 크레파스 (검정, 빨강, 노랑, 파랑)				
지도 시 유의사항	1. 다양한 음의 세기로 구성 되어진 음악을 준비한다. 2. 아동들이 균형감각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의 규칙과 준비물을 미리 준비한다. 3. 활동 중 아동들이 다치지 않게 주의 깊게 지도한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활동		학생활동		
도입(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환경 조성 ◦ 학습자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 교사와 학습자 간에 인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앉아서 수업을 준비한다. ◦ 교사와 인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를 미리 준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유발 ◦ 학습자에게 다양한 음의 세기로 이루어져 있는 음악을 들려준다. - 요한 스트라우스 1세: 라데츠키 행진곡 ◦ 노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눈다. -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 것 같나요? - 어떤 상황에서 듣는 노래일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를 듣고 교사의 질문에 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을 감고 소리에만 집중하여 리듬에 맞춰 큰 소리가 날 땐 큰 박수를, 작은 소리가 날 땐 작은 박수를 치게 한다. ◦ 활동 목표를 제시한다. 제시된 음악을 듣고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해 볼 것을 알려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에만 집중하여 노래를 듣고 큰 소리는 박수를 크게, 작은 소리엔 박수를 작게 쳐본다. 	
<p>전개(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활동하기 ◦ 노래를 듣고 움직임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 이 노래를 몸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 노래에 맞춰 바닥에 제시된 이미지에 따른 규칙을 설명한다. ● - 두 발로 서기 ■ - 한 발로 서기 ◦ 리듬에 따라 점, 선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 큰 소리가 날 땐 동작을 크게 해서 그려보고, 작은 소리가 날 땐 동작을 작게 해서 그려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를 듣고 자유롭게 움직임으로 표현해본다. ◦ 주어진 규칙을 지키며 노래의 리듬에 따라 활동한다. ◦ 리듬에 따라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자유롭게 표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사고가 나지 않게 유의한다.

정리(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상하기 ◦ 완성된 그림 감상하기 - 내가 느낀대로 그린 그림과 다른 친구들이 느낀 그림의 차이점을 이야기 나눈다. ◦ 주변 정리 및 인사 스스로 주변 정리를 하고 인사하며 마무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표현한 그림과 다른 친구들이 표현한 그림의 차이점을 느껴본다. ◦ 주변을 정리한 후, 인사하며 마무리한다. 	
--------	---	--	--

(2) 수업 활동 결과

<표 9> 1차시 <몸으로 느끼고 표현해 보아요> 수업 결과물



(3) 수업을 위한 지도내용

이 수업은 클래식 음악을 소재로 청각과 운동감각, 균형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다. 클래식 음악은 아동들에게 낯선 소재이기도 하고 많이 접해보지 못한 음악인 만큼 많은 지도가 필요하다.

클래식 음악을 요한스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을 선정한 이유는 이 곡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음의 세기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아이들에게도 라데츠키 행진곡을 들려준 후, 소리가 크게 연주되는 부분과 소리가 작게 연주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큰 소리에는 큰 동작을 작은 소리에는 작은 동작을 할 것을 지도한다.

교사는 아동들에게 노래에 맞추어 바닥에 제시된 이미지에 따른 규칙을 설명한 후 한명씩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마지막 표현 단계에 있어서는 점과 선을 사용하도록 하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형태나 상상, 발상을 자유롭게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표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마음껏 표현을 해본 후에는 다른 친구들이 그린 그림과 비교하며 같은 노래를 들었지만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4) 1차시 활동 분석

처음 클래식 음악을 들려줄 때에는 많이 접해보지 못한 음악이라 관심을 끌기 어려웠지만 큰 소리, 작은 소리를 구분하고 큰 소리에는 큰 박수를 치거나 작은 소리에는 작은 박수를 치도록 움직이는 신체 활동을 유도하니 동기유발이 강하게 일어났다. 더불어 동작을 더 크게 하기 위해 의자를 책상 아래 집어 넣고 일어서서 활동할 때에는 지나치게 흥분을 한 아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아이, 집중을 못하는 아이 등 약간은 어수선 하였다. 하지만 다치지 않도록 규칙을 정해주고, 교사를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니 많은 아이들이 차분하게 따라오기 시작했다. 다음 균형 감각을 느껴볼 단계에서는 규칙을 정해주고 먼저 시범을 보여주니 무리없이 질서 정연하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음악을 듣고 표현 활동을 하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아이들의 특성을 볼 수 있었다. 표현에 제한을 두지 않으니 주저없이 마음껏 표현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 마음대로 하기 머뭇거리는 아이를 볼 수 있었다. 대부분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자유

롭게 표현을 하며 선을 표현하는 것 중에서도 직선도 나타날 뿐만아니라 곡선도 나타나고 끊어지는 선도 나타나는 등 다양한 선을 가지고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신체 활동에서부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아동들은 그림 표현에서도 소극적인 표현으로 나타났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선으로만 그리거나, 아무 의미 없이 점을 찍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표현활동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주변이 조용한 환경이 되지 않아 아동들을 음악에 집중을 못하는 모습도 보였고, 아동들의 말소리에 음악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정확하게 음의 세기를 구분하기 힘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무 의미없이 점을 찍거나 선을 그리는 아동들이 없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음악을 듣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청각, 균형감각, 운동감각은 모두 적절하게 활용이 되었다. 소리를 구분하면서 듣는 활동을 통해 아동들은 청각을 잘 활용했으며, 음악을 듣고 의미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움직임을 계획하거나 생각을 가지고 움직임으로 실현하는 것을 통해 운동감각을 적절히 사용하였다. 그리고 운동 감각이 잘 발달되었기 때문에 균형감각을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며 운동감각과 균형감각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알아내었다.

2) 2차시 - 손이 시러워!

2차시에는 슈타이너의 12감각 중 촉각, 생명감각, 열감각 3가지 감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손이 시러워!> 는 미끄럽고 차가움을 느낄 수 있는 얼음을 소재로 사용하였다. 이 차시는 얼음을 충분히 탐색해 얼음의 특성을 알아가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 그림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보이지 않는 비밀 상자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를 만지기 전에 아동이 가지는 공포와 긴장을 통해 아동은 생명감각을 느끼게 된다. 몸의 긴장을 푸는 것보다 건강한 형태의 긴장은 학습에 매우 효과적이다. 더불어 아동이 얼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차가움을 견디는 고통을 통해서도 생명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이어서 얼음의 미끄러운 촉감과, 탐색하는 과정에서 생긴 깨진 얼음의 까칠함을 통해 아이들은 촉각을 경험하게 된다. 미끌거리고 까칠한 질감에 아이들은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얼음을 만지는 그 자체에서 느끼는 차가움은 열감각에 속하며, 얼음을 쥐고 있을 때 녹는 모습을 통해 아동의 손에 있는 열기가 얼음으로 열이 전도되어 물이라는 형태로 녹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얼음이라는 한가지 재료로 촉각, 생명감각, 열감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감각의 연계성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1) 교수-학습 지도안

<표 10> 2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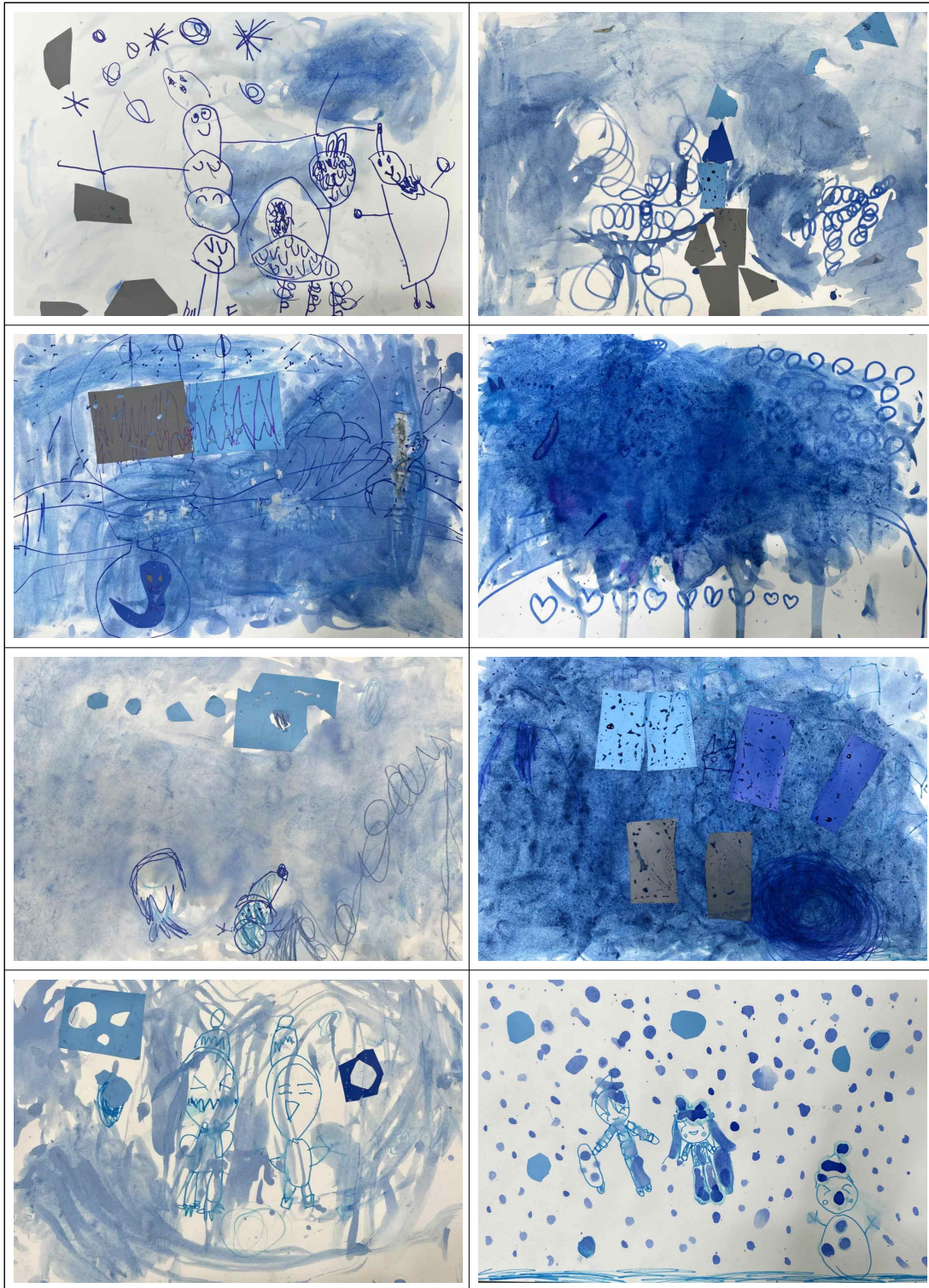
활동명	손이 시러워!	대상	6,7세	차시	2차시
활동주제	얼음을 이용해 추운 이미지 표현하기 _촉각, 생명감각, 열감각을 중심으로				
학습목표	1. 얼음이 주는 차가움을 느끼고, 얼음의 특성을 알 수 있다. 2. 얼음으로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다. 3.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다.				
준비물	전지, 얼음, 물감, 시트지, 크레파스				
지도 시 유의사항	1. 얼음이 녹지 않게 미리 준비 해 놓는다. 2. 아동들이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의 종이를 준비한다. 3. 아동들이 흥분하여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도한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활동		학생활동		
도입(10)	▪ 학습 환경 조성 ◦ 학습자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 교사와 학습자 간에 인사한다.		◦ 앉아서 수업을 준비한다. ◦ 교사와 인사한다.	◦ 비밀 상자 안에 미리 얼음을 준비한다.	
	▪ 동기유발 ◦ 얼음이 들어있는 비밀 상자를 준비하여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 시킨다. - 흔들어서 소리를 들려주며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한사람씩 비밀 상자 안에 손을 넣어 촉감을 느껴본다.		◦ 교사가 들고 있는 비밀 상자 안에 있는 것을 유추해본다. ◦ 비밀 상자 안에 손을 넣어 촉감을 느끼며 내용물을 유추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목표를 제시한다. 얼음의 특성을 파악하고, 얼음을 이용해 차가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활동 목표를 제시한다. 		
전개(30)	<p>▪ 학습 활동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가운 색의 크레파스와 시트지로 추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아동의 촉감 자극을 위한 얼음을 만져보며 얼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음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 얼음을 손으로 꼭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 얼음에 차가운 색 물감을 섞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감을 얼음 위에 떨어뜨리도록 지도하여 미끄러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 물감과 얼음을 손으로 섞어 차가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직접 섞은 얼음 물감을 이용해 그림 위의 배경에 칠하도록 지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제시한 크레파스와 시트지로 추운 이미지를 표현한다. ◦ 교사가 질문하는 얼음에 관한 특성을 직접 행동으로 경험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음을 떨어뜨려보기 - 얼음을 손으로 꼭 쥐어 차가움을 느껴보기 ◦ 교사의 지도에 따라 얼음 위에 물감을 떨어뜨리면 미끄러지는 모습을 관찰하고 직접 차가움을 느끼며 얼음과 물감을 섞어본다. ◦ 얼음 물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도화지 위에 그려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레파스, 얼음, 개인 그릇, 물감, 시트지 ◦ 얼음 탐색 활동을 할 때에는 아동들이 흥분할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유의한다. ◦ 차가워진 손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물을 준비한다.

정리(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된 그림 감상하기 - 자신이 그린 그림에서 차가움이 느껴지는지 감상하고 이야기 나눈다. ◦ 주변 정리 및 인사 스스로 주변 정리를 하고 인사하며 마무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표현한 그림에서 차가움을 느껴본다. ◦ 주변을 정리한 후, 인사하며 마무리한다. 	
--------	---	---	--

(2) 수업 활동 결과

<표 11> 2차시 <손이 시려워!> 수업 결과물



(3) 수업을 위한 지도 내용

이 수업은 얼음을 소재로 촉각과 생명감각, 열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다. 교사는 사전에 비밀 상자를 제작하여 아동들이 보이지 않는 상자에 손을 넣어 재료를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보이지 않는 비밀 상자를 사용한 이유는 손을 넣기 전에 아동들이 느끼는 긴장이나 공포, 호기심이라는 생명감각을 느끼기 위함이다. 따라서 아동들에게 직접 손을 넣어 재료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한다.

얼음을 탐색할 때에는 다양한 질문을 던져 얼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얼음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깨뜨려보기도 하고, 얼음을 종이 위에 올려놓고 미끄러지는 특성을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표현 활동에 있어서는 차가운 색의 펜을 가지고 추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차가운 색 물감을 섞은 얼음으로 배경을 색칠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배경을 칠할 때에는 직접 얼음을 손에 쥐고 차가움을 느끼며 색칠 할 수 있도록 한다. 표현 활동을 한 후에는 차가워진 손을 녹일 수 있도록 교사는 따뜻한 물을 미리 준비한다. 차가운 색과 얼음으로 표현한 그림에서 차가움이 느껴지는 지 감상하고 다양한 소통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4) 2차시 활동 분석

보이지 않는 비밀 상자를 미리 준비 함으로써 아동들의 흥미를 이끌었다. 안에 들어있는 물체를 맞추기 위해 보이지 않는 상자에 손을 넣어야 함을 알려주며 아동들에게는 동기유발이 강하게 일어났다. 여기서 아동들은 상자에 손을 넣기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먼저 나서서 하겠다는 아이들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자에 손을 넣은 후에는 바로 어떤 재료인지 아동들이 쉽게 맞출 수 있었지만, 정답을 바로 얘기해버려 아직 해보지 않은 아동들에게는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칙을 다시 한번 아동들에게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 얼음의 특성을 파악하기 전에 다양한 색깔의 사인펜들 속에서 차가운색을 구분하게 하여 추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추운 이미지를 그리는 것은 며칠전 눈이 많이 내린 날을 상상하며 무리없이 모든 아이들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표현 활동을 마친 후에는

각자 개인 그릇에 얼음을 제시하여 촉감을 이용해 얼음을 만져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만져보는 활동을 통해 그냥 만져보는 것이 아닌 얼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고, 직접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얼음이 주는 차가움을 참아가며 손에 꼭 쥐고 있을 때 떨어지는 물의 모습을 관찰하며 자신의 손에 있던 열이 얼음으로 옮겨갔음을 이야기를 나누었다. 얼음을 탐색할 때에는 흥분하여 소리지르거나, 차가워서 그만 만지고 싶다는 아이 등 어수선한 상황이었지만 다시 한번 이번 수업의 목표에 대해 말해주니 차가움을 참아가면서 수업에 임하는 아동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얼음을 충분히 탐색한 후에는 차가운 색의 물감을 제시하여 직접 얼음에 짤 수 있도록 하였고, 붓을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물감과 얼음을 섞을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색을 섞은 후에는 자신이 그린 그림 위의 배경에 자유롭게 칠하도록 지도하였다. 배경을 칠할 때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안보일 정도로 칠하는 아이도 있었고, 적절하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피해 칠하는 아이, 그리고 얼음을 이용해 눈이 내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아이 등 얼음이라는 하나의 재료만을 가지고도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교사가 놓쳤던 부분은 사인펜을 제시하여 얼음을 사용할 때 사인펜이 번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였다. 자유롭게 표현 활동을 한 후에는 차가워진 손을 녹일 수 있는 사전에 준비한 따뜻한 물을 통해 아동들의 손을 녹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린 그림과 다른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감상하며 차가움을 느껴 볼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수업에서는 미끄럽고 차가운 얼음을 촉각을 이용해 만져보고, 얼음의 차가움과 내 손에 있던 열이 얼음으로 전도되어 물이 되는 과정으로 열감각을 느낄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차가움을 참는 고통, 보이지 않는 상자에 손을 넣어야 하는 공포감, 긴장을 통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생명감각을 적절히 활용하고 감각의 연계성을 느끼게 해주었다.

3) 3차시 - 맛과 냄새를 그려요.

3차시에는 슈타이너의 12감각 중 미각, 후각, 시각을 느낄 수 있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맛과 냄새를 그려요>는 학습자들이 직접 맛과 냄새를 느낄 수 있도록 음식(간식)을 소재로 사용하였다. 이 차시에서는 미각과 후각을 통해 좋고 나쁨을 구분할 수 있고 자신이 느낀 미각과 후각을 색채로 표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림자료만 보고 학습자들이 좋은 맛(냄새), 나쁜 맛(냄새)를 구분하고 직접 맛을 보고 냄새를 맡는 활동을 통해 미각과 후각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느낀 맛과 냄새를 습식 수채화라는 기법을 통해 맛과 냄새를 경험해보면서 느낀 감정들을 색채로 표현함으로써 시각이라는 감각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음식(간식)을 소재로 미각, 후각, 시각을 느낄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1) 교수-학습 지도안

<표 12> 3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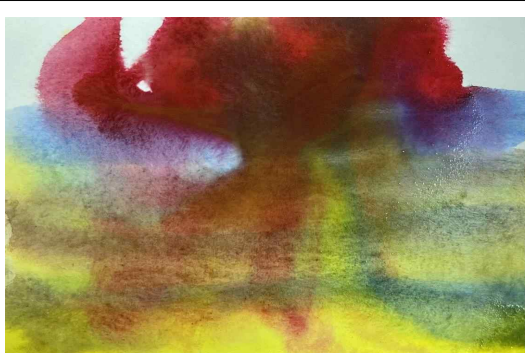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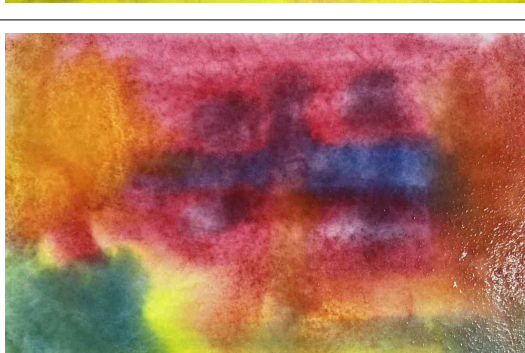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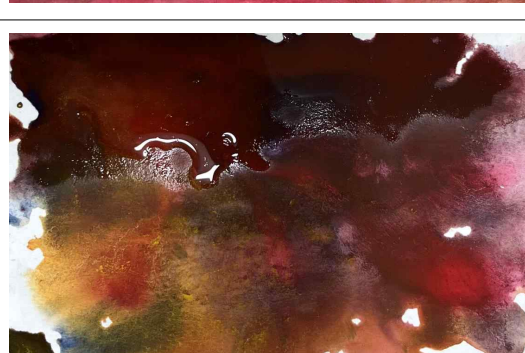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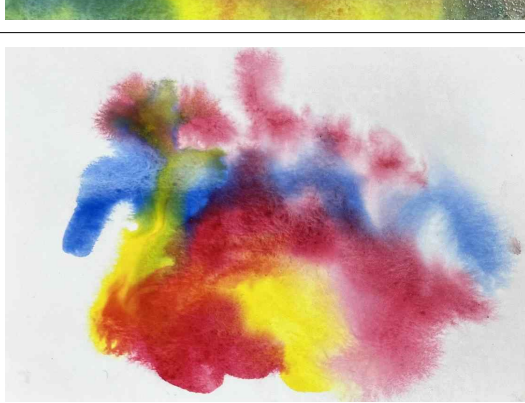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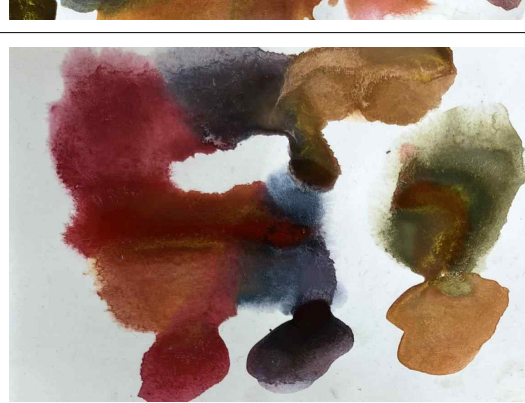
활동명	맛과 냄새를 그려요	대상	6,7세	차시	3차시
활동주제	맛과 냄새를 습식수채화 기법으로 표현하기 _미각, 후각, 시각을 중심으로				
학습목표	1. 사진을 보고 좋은 맛(냄새), 나쁜 맛(냄새)로 분류할 수 있다. 2. 내가 느낀 맛과 냄새를 색채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3.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다.				
준비물	8절지, 물감(빨강, 노랑, 파랑), 붓				
지도 시 유의사항	1. 미각과 후각을 상상할 수 있는 사진 자료를 준비한다. 2. 아동들이 직접 먹어보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음식(간식)을 준비한다. 3. 습식 수채화를 할 때에는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활동		학생활동		
도입(10)	▪ 학습 환경 조성 ◦ 학습자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 앉아서 수업을 준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학습자 간에 인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인사한다. 	
	<p>▪ 동기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에게 다양한 맛과 냄새를 상상할 수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눈다. - 이것은 어떤 맛이 날까요? - 어떤 식감이 날까요? - 이것은 어떤 냄새가 날까요? ◦ 사진 자료를 좋은 맛(냄새)와 나쁜 맛(냄새)로 분류하도록 한다. ◦ 활동 목표를 제시한다. <p>제시된 사진의 맛과 냄새를 상상해본 것을 직접 경험해본 것과 비교하며 색채로 표현할 것을 알려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을 보고 교사의 질문에 답한다. ◦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맛(냄새)와 나쁜 맛(냄새)를 분류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진개(30)	<p>▪ 학습 활동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준비한 음식(간식)을 냄새를 맡아보고 맛을 보며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아동들이 느낀 맛과 냄새를 습식 수채화로 표현할 수 있게 지도한다. - 습식 수채화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빨강, 노랑, 파랑색을 이용해 내가 느낀 것을 색깔로 자유롭게 표현해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먹어보고 냄새를 맡아보며 교사의 질문에 답한다. ◦ 교사가 준비한 종이 위에 빨강, 노랑, 파랑색을 이용해 맛과 냄새를 표현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고 나서 마스크를 바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습식수채화를 할 수 있도록 젖은 종이를 미리 준비한다.

정리(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상하기 ◦ 완성된 그림 감상하기 -자신이 표현한 그림과 친구들이 표현한 그림을 감상한다. ◦ 주변 정리 및 인사 스스로 주변 정리를 하고 인사하며 마무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서로 어떤 맛을 표현했는지 유추해보며 감상한다. ◦ 주변을 정리한 후, 인사하며 마무리한다. 	
--------	---	--	--

(2) 수업 활동 결과

<표 13> 3차시 <맛과 냄새를 그려요> 수업 결과물

좋은 맛(냄새)	나쁜 맛(냄새)
	
	
	
	

(3) 수업을 위한 지도 내용

이 수업은 아동들이 직접 맛과 냄새를 느낄 수 있도록 음식(간식)을 소재로 사용하였다. 아동들이 다양한 맛과 냄새를 상상할 수 있도록 교사는 사진 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아동들은 교사가 준비한 사진 자료를 보고 좋은 맛(냄새), 나쁜 맛(냄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구분한 후에는 맛과 냄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상상했던 맛과 냄새와 실제 교사가 준비한 음식(간식)을 맛을 보며 비교해본다. 먹고 나서는 바로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맛을 본 후에 좋은 맛(냄새), 나쁜 맛(냄새)에 대한 표현활동에 있어서는 습식수채화 기법을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물감은 색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노랑 3가지 색을 준비해 아동들이 직접 색의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자신이 느꼈던 것에 대해 색깔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3차시 활동 분석

사전에 사진 자료를 준비함으로써 아동들의 맛과 냄새를 상상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이끌었다. 주변에서 자주 접하고 아동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초콜릿이 예시 사진으로 제시가 되니 관심이 컸다. 사진 자료에 제시된 음식(간식)을 가지고 사전 활동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맛이 날지, 어떤 냄새가 날지, 식감은 어떨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맛이나 냄새에 대해 상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활동으로는 사진 자료에 있는 음식(간식)들을 좋은 맛(냄새), 나쁜 맛(냄새)로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직접 아동들이 맛을 보고 냄새를 느낄 수 있도록 교사는 사전에 간식을 준비해두었다. 아동들에게 달콤하고 신기한 식감이 나는 머랭쿠키와 아동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맛인 민트초코를 간식으로 준비하여 직접 냄새를 맡아본 후 맛을 보게 하였다. 맛을 볼 때에는 맛을 보고난 후에는 바로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였다. 직접 맛을 보고난 후에는 맛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색채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색채로 표현하기 위해 습식수채화라는 기법을 활용하였는데 습식수채화를 활용한 이유는 아동들에게 색채의 본질적인 요소를 잘 보여줄 수 있으며, 좋은 색채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색깔은 기본 삼원색인

빨강, 노랑, 파랑을 제시하여 습식수채화가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고 자유롭게 자신이 느꼈던 좋은 맛, 나쁜 맛에 대해 색채로 표현하도록 지도하였다. 색채로 표현하면서 아동들은 색이 흐르는 듯한 움직임 발견하면서 신기해하는 아이도 있었고, 색들이 섞이면서 다른 색으로 바뀌는 모습을 발견하는 아이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좋은 맛(냄새)에서는 원색을 섞이지 않게 잘 활용하여 높은 채도의 모습을 보였고 나쁜 맛(냄새)에서는 원색들이 섞여 나오는 어두운 색깔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색채 표현에서 수업 목표를 잘 지키며 표현하는 아동들도 있었지만 몇몇 아동들은 습식수채화에서 느낄 수 있는 색채의 다양한 본질적인 요소들을 관찰하느라 좋은 맛, 나쁜 맛에 대해 명료하게 나뉘어 색채로 표현되지 않는 것 같다. 색채 표현 활동을 하기 전 다시 한번 수업의 목표에 대해 상기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4) 4차시 - 그림 문자를 만들어 보아요.

4차시에는 슈타이너의 12감각 중 사고감각, 언어감각, 자아감각을 느낄 수 있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그림문자를 만들어보아요>는 페르난도 보테로의 <Couple with Still Life> 작품을 소재로 사용하였다. 이 차시에서는 언어의 다양성을 알아보고 그림 속 인물들의 대화를 그림문자로 표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페르난도 보테로의 작품 속 두 남녀의 대화를 열린 사고로 생각하는 활동은 아동들의 사고감각을 자극한다. 이어 두 남녀의 대화를 그림문자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아동들은 언어라는 개념을 인식하게 되면서 언어감각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대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타인을 인식할 수 있는 자아감각과 이어진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그림 명화를 소재로 사고감각, 언어감각, 자아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1) 교수-학습 지도안

<표 14> 4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명	그림문자를 만들어보아요	대상	6,7세	차시	4차시
활동주제	명화를 보고 그림 속 인물들이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그림문자로 표현하기 _사고감각, 언어감각, 자아감각을 중심으로				
학습목표	1. 명화를 보고 그림 속 인물들의 대화를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2. 대화 내용을 그림문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3.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다.				
준비물	명화그림, 연필, 시트지				
지도 시 유의사항	1. 아동들이 대화를 만들어볼 수 있도록 명화 그림을 미리 준비한다.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활동		학생활동		
도입(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환경 조성 ◦ 학습자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앉아서 수업을 준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학습자 간에 인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인사한다. 	
	<p>▪ 동기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에게 언어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 글자가 없던 옛날에는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요? -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에게 명화를 보여주고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 페르난도 보테로<Couple with Still Life> - 어떤 상황의 그림일까요? - 이 두사람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목표를 제시한다. <p>명화를 보고 두 사람의 대화를 그림문자로 표현할 것을 알려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질문에 답한다. - 그림으로 그렸을거 같아요. - 종이컵 전화기를 썼을거 같아요. - 영어요. 중국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화를 보고 교사의 질문에 답한다. - 밥먹자고 하는 거 같아요. - 맛있는건 내가 다 먹겠다고 하는거 같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전개(30)	<p>▪ 학습 활동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준비한 뽑기 통에 한 사람씩 단어를 뽑도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뽑은 종이 안에 써있는 단어를 그림문자로 표현해보도록 지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뽑은 종이 안에 써있는 단어를 그림문자로 표현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친구들이 만든 그림문자 카드를 보면서 단어를 유추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학습자에게는 컷속말로 단어를 이야기해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한 그림문자 카드를 칠판에 붙여 다른 학습자들이 맞춰보게 지도한다. ◦ 앞서 본 명화 속 두 인물의 대화를 그림문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문자로 명화 속 대화를 완성한다. 	
정리(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상하기 ◦ 완성된 그림문자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완성한 그림문자와 다른 친구들의 그림 문자를 감상해보도록 한다. - 어떤 대화를 표현했는지 서로 유추해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주변 정리 및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스로 주변 정리를 하고 인사하며 마무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친구들의 대화를 보고 유추해본다. ◦ 주변을 정리한 후, 인사하며 마무리한다. 	

(2) 수업 활동 결과

<표 15> 4차시 <그림문자를 만들어 보아요.> 수업 결과물



(3) 수업을 위한 지도 내용

이 수업은 그림 명화를 소재로 사고감각과 언어감각, 자아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다. 교사는 사전에 아동들의 흥미를 끌만한 그림 명화를 미리 준비한다. 그림 문자에 대해서는 아동들에게 낯선 소재이므로 많은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먼저 그림 문자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후 언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퀴즈를 통해 그림문자를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그림문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에는 아동들이 직접 그림 명화에 나오는 인물의 대화를 열린 사고를 통해 유추해보며 대화 내용을 그림문자 형식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때 아동들의 열린 사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는 확산적 발문을 해야 한다. 표현단계에 있어서 아동들이 자유롭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표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감상단계에서는 다른 친구들이 만들어낸 그림문자를 보며 서로 유추하며 살펴보도록 한다.

(4) 4차시 활동 분석

아이들에게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글자가 없던 시대에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 글을 썼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동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점점 교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였고, 음성으로 들려줌으로서 동기유발이 강하게 일어났다. 아동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작품은 페르난도 보테로의 <Couple with Still Life>작품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보테로작가의 작품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유쾌스러움과 익살스러움을 아동들의 흥미를 끌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사가 생각했던 대로 아동들에게 보테로 작품은 재미있고 이상한 그림으로 다가갔고 아동들의 관심이 매우 컸다. 보테로 작품을 가지고 두 남녀의 대화를 유추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남녀의 똥똥한 몸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아이도 있었고, 식탁에 놓여진 음식을 주제로 이야기 하는 아이도 있었다. 각자 유추해본 대화를 그림문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도입 활동으로 교사가 준비한 뽑기 통을 제시하였다. 한사람씩 뽑은 종이 안에 써있는 단어를 그림문자로 표현해보도록 지도하였다. 처음에는 그림문자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였으나 교사가 여러개의 예시를 보여주고 난 후에는 곧 잘 이해하여 그림

문자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아직 글자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따로 이야기 해줄 필요가 있다. 완성된 그림 문자를 각자 칠판에 붙여 다른 친구들이 맞춰보게 지도하였다. 퀴즈 맞추기로 접근하니 아동들이 부담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입 활동을 마친 후에는 검정색 시트지와 검정색 점스티커를 제시하여 아동들이 자유롭게 자르고 그림문자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아동들에게 어렵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스스로 유추했던 대화 내용을 시트지를 가지고 표현되는 것에 굉장한 흥미를 보였다. 간혹 자신이 생각한 대화 내용을 그림 문자로 간편하게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주저하는 아동들도 있었지만 옆에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니 조금씩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림 문자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아동들의 사고감각, 언어감각, 자아감각은 적절하게 활용이 되었다. 먼저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다양한 언어를 보여주고 들려주었고, 그림 명화의 두 사람이 언어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통해 아동들은 언어 감각을 느꼈을 것이다. 이어 두 사람의 대화를 열린 사고로 생각하여 유추하는 활동을 통해 사고감각을 자극하였고, 비록 그림 명화이지만 나 자신과, 그림에 나타난 여자, 남자 각각의 세 사람을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는 것 만으로도 자아감각을 활용했음을 알아내었다.

5) 수업 지도 결과 문제점 및 기대효과

본 연구의 목적은 수많은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있어 인간이 가지는 감각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요즘 아이들을 위해 아동들의 감각을 온몸으로 느끼고 깨워주기 위함에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에 있어 감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슈타이너의 12감각을 활용한 아동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총 4차시의 각각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동들은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감각들을 활용하며 수업을 진행하였다. 아직 집중력이 길지 않은 6-7세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도입 단계에서 아동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소재들을 많이 활용하였다. 노래나 비밀상자, 퀴즈 등 아동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소재를 활용하니 동기유발이 강하게 일어났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적절한 감각의 활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아동들은 노래에 맞춰 몸을 움직인다거나 습식수채화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소근육과 대근육 발달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열음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활동을 하거나 색채의 특성을 파악하고 색깔들이 섞이고 흐르는 모습을 통해 아동들의 표현 방법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인지 영역 확장과 더불어 창의력 발달에도 효과적이었다. 또한 교사가 던지는 확산적 질문과 그림 명화를 보고 대화를 유추하는 활동을 통해서 열린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고, 유추한 대화를 그림문자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 능력이 향상되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동들은 그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과정에 중점을 두고 활동함으로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점도 느낄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아동들의 흥미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동기유발의 방법을 시도했지만 동기유발의 소재를 제시하였을 때 자신이 관심가지는 것에만 집중하여 다음 단계인 전개 단계의 표현활동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그림 문자 수업을 진행하면서 6-7세 아동 중 아직 언어 발달 능력이 뒤처지는 아동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문자를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좀 더 연령이 높은 아동들에게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집중 하다가도 다른 길로 빠지는 아동이나, 교사가 요구하는 수업의 흐름대로 하고 싶지 않은 아동 등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사의 대처능력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어린 연령대의 아동들은 집중력도 짧을뿐더러 언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동들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IV. 결론

인간은 어디에서나 다양한 형태로 감각과 함께 살아간다. 즉, 인간은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며 자극의 신호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음식의 맛을 볼 때에도, 소리를 들을 때에도, 심지어 무언가를 만질 때에도 우리는 감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그 예이다. 특히나 성장기의 아동들은 온몸이 감각체가 되어 감각을 통해 주변을 탐색하고 받아들이며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동들에게는 다양한 감각의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이 곧 교육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아동 미술 활동에서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 보다는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경험하고 탐색하는 활동을 통해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아동들에게 있어 감각 교육의 중요성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언급이 되어왔으며, 교육을 곧 예술로 바라보는 루돌프 슈타이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감의 범위를 벗어나 12가지로 세분화하여 감각을 설명한다. 이에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12가지 감각의 발달을 주장하고 감각의 발달은 더 나아가 건강한 개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에도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전도식기(4-7세) 아동 중 6-7세를 대상으로 하여 루돌프 슈타이너의 12감각을 활용한 아동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아동 미술 교육 방향을 제안한다. 12감각을 활용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이 다양한 경험과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인지 능력 향상, 올바른 정서발달, 긍정적인 사고 확립, 창의력 발달, 신체 발달 등에 영향을 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시된 프로그램은 총 4차시 과정으로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였고, 1차시 ‘몸으로 느끼고 표현해보아요’는 청각과 운동감각, 균형감각을 활용한 수업으로 음악을 소재로 다양한 음의 세기가 있는 음악을 듣고 리듬에 따라 직접 움직여 보고 그에 맞춰 선과 점을 이용한 그림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2차시 ‘손이 시려워!’는 촉각과 생명감각, 열감각을 활용한 수업으로 얼음을

소재로 하여 얼음의 특성을 파악하고 추운 이미지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3차시 ‘맛과 냄새를 그려요’는 후각과 미각, 시각을 활용한 수업으로 맛과 냄새를 통해 느낀 감정을 습식수채화 기법을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4차시 ‘그림문자를 만들어요’는 사고감각, 언어감각, 자아감각을 활용한 수업으로 그림 명화를 보고 대화를 유추해보며 그림문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감각을 접목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통해 나타난 아동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슈타이너가 주장했던 의지(몸), 감정(혼), 사고(영)의 3가지 영역의 조화로운 발달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의지(몸) 감각에 있어서는 아동들이 직접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지고, 노래에 맞춰 움직이고 균형을 맞춰가는 활동을 통해 몸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동들이 스스로 운동하고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를 통해 자기주도적인 태도와 신체 발달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감정(혼) 감각에 있어서는 아동들이 직접 맛을 보고 냄새를 느껴보며, 시각을 통한 다양한 색채의 경험을 통해서 좋고 나쁨과 같이 고유한 개별적인 감정을 지각하는 경험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개별적인 선호의 여부가 결정되었고 아동들은 자기 존재와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 세계를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사고(영) 감각에 있어서는 아동들이 언어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열린 사고를 통해 아동 개개인의 주관적인 선호나 취향에 의한 것이 아닌 오로지 사고를 통해 언어의 존재, 자아의 존재와 같이 대상 그 자체가 존재함을 이해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아동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인지할 수 있는 인지 능력 향상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로써 아동들은 다양한 소재들을 듣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움직여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각을 자극하여 오로지 감각을 통해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아동들은 다양한 감각들을 자극하는 활동을 통해 얻어진 호기심과 관심은 표현 활동으로 연계되어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창의적인 자기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길러주며 사고 능력의 확장과 창의력 신장을 도모한다.

아동들의 12감각을 자극하고 올바른 자아를 형성한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는 주제에 맞는 동

기유발과 함께 주어진 감각에 적절하고 다양한 재료를 선택하여 아동들이 창의적인 표현과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또한 아동의 발달 상태를 고려하여 발달 수준에 맞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재료 선택의 기준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처럼 감각 교육의 구체적 방법과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감각 교육을 통해 아동들에게 감각의 자극을 이끌어내고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꺼내준다면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생활하는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뿐더러 미술 표현에 있어 창의적 표현과 사고 능력을 확장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감각을 활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남정덕, 김혜리, 이소영(2019), 「남들은 모르는 미술 전공 이론」, 미진사.
이소은, 권기남(2016), 「아동미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오현숙 외 4인(2019), 「아동미술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알베르트 수스만(2007), 「12감각-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 입문」, 서유경 역
(2016), 푸른씨앗.

<학술논문>

- 김재희(2014),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 연구”, 「슈타이너 교육예술론을 기반으로 한 색채 디자인 교육 수업방안 연구 - 전도식기 아동 6세부터 7세 중심으로」, 제47권,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회.

<학위논문>

- 김나은(2021), “놀이를 통한 전도식기 아동 미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선애(2000), “몬테소리 감각교육이 유아의 지각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혜진(2016), “로웬펠드 유아 미술 교육론의 교육적 의의”,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류재숙(2003), “슈타이너의 교육예술론에 근거한 미술교육 연구: 포르멘과 수채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연순(2008), “슈타이너 교육사상에 기초한 유아 미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이경연(2016), “3세 유아를 위한 감각 놀이 기반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이선영(2011), “감각경험의 교육적 의미: 루소와 코메니우스의 관점 비교”, 석사

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우진영(2016), “독일 자유발도르프학교의 교육 특성이 우리나라 통합 교육에 미치는 시사점”,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윤송희(2011),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예술론에 기초한 미술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참고 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감각」, <https://terms.naver.com/>, 2022년 12월 4일.

<ABSTRACT>

A Study on an Art Educational Program for Children
Utilizing Rudolf Steiner's Theory on the Twelve Senses

Da-Hee Ko

Department of Art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Supervised by Professor Min-Seok Kang

Entering the digital media age, we can access media anytime and anywhere with ease. Consequently, we are highly reliant upon digital media, obtaining a wealth of information from various sources. The pervasive digital media exposes us to intense stimuli, which in turn can lead to the deterioration of our innate sensory organs. More concerning is the fact that children, who acquire knowledge about the world through their senses, increasingly adapt to artificial elements such as digital images and sounds, resulting in an ever-growing distance between their senses and themselves. For these children, it is essential to awaken and fully experience their senses, but there is a lack of spaces designed for this purpose. Moreover, in the field of art education for children, the focus tends to be on teaching them how to draw well and emphasizing the final product rather than nurturing their sensory experiences.

Therefore, in this study, a children's art program was proposed for 6-7 years old, who gradually began subjective schematic expression among children (4-7 years old), the second stage of Victor Rowenfild's development of children's art expression.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enses in children's growth and proposes a guidance plan for children's art education programs using Rudolf

Steiner's 12-sensory theory by expanding human senses. This aims to expand thinking and develop creativity,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senses, the emotional sense in the child's mind opens, develops positive emotions in the child.

This study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I explains the research's necessity, objectives, content, and methods. Chapter II presents the concepts and developmental stages of art education for children,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ensory-based art education for children, and analyzes the twelve human senses based on Rudolf Steiner's theory on the twelve senses. Chapter III presents teaching and learning guidelines utilizing the twelve senses. The learning guidance stages consist of lesson planning and materials preparation, creating a learning environment and motivating students, key points and exploration in the lesson, sensory activities and expression, and appreciation and evaluation. Targeting children of 6-7 years old in the preschematic stage, the study proposes effective guidance strategies applicable to art education for children settings by conducting sensory-based art classes, enabling them to recognize their senses, focus solely on their senses, and immerse themselves in the experience.

The development of specific application methods and adaptable approaches requires the continuous study of professional educators, as well as efforts to construct teaching and learning guidelines that awaken children's senses through various materials and methods. It is our hope that, with ongoing research, the focus in art education for children shifts away from merely prioritizing the end product of their drawings, and towards child-centered, diverse art lesson guidance tailored to their needs.